

리딩 리서치의 변동성 장세 대응전략

< 변동성을 이겨낼 현금흐름 개선 업종과 종목은?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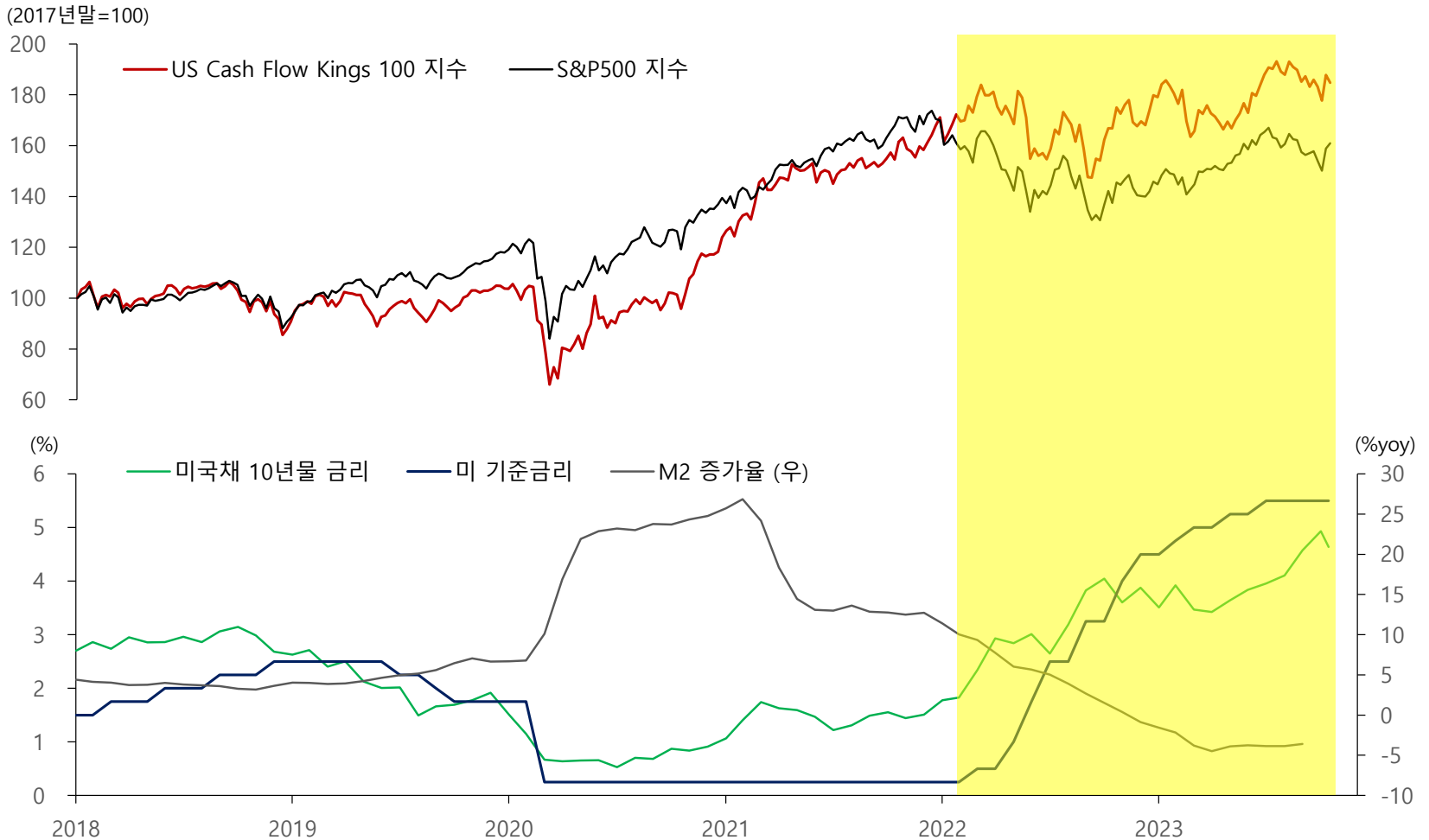
리딩투자증권 곽병열

2023.11.14

1 고금리로 현금가치 ↑ → 현금흐름 개선 기업의 선호도 ↑

- 미국의 경우 현금흐름(FCF) 개선 기업군의 초과이익률 현상은 2022년 이후 지속 중임
 → 고금리로 현금가치 상승 → 현금 창출력 프리미엄 강화 → 불확실성 클수록 잉여자본은 Buffer 역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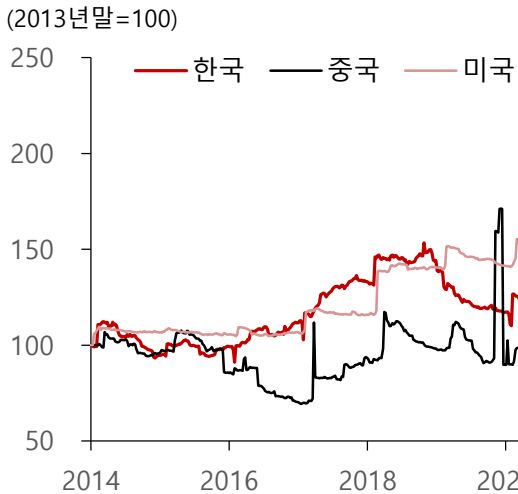
금리인상 사이클로 고금리 구간에서 현금흐름 개선 기업군의 초과이익률 현상 발견



2 한-미-중 증시의 수익률 차별화의 원천 → 현금흐름 !

- 한-미-중 주요기업의 예상 현금흐름을 살펴보면,
 - 미국 기업의 상대적인 현금흐름 우위 현상이 뚜렷했고, 2022년 이후 상대 수익률 격차는 현금흐름 개선 폭 이상으로 확대되어 반영됨
 - 현금 창출력 프리미엄은 고금리 국면의 주식시장에서 보다 증폭되는 경향성을 보여줌

한-미-중 주요기업의 예상 현금흐름



자료 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주: MSCI 예상치 기준임

한-미-중 주식시장의 상대수익률



자료 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주: MSCI 기준임

- PCFR(Price to Cash Flow Ratio): 올해 대비 FY24 현금흐름 기준의 저평가 매력 업종에 주목
- 디스플레이, 조선, 유틸리티, 반도체, 하드웨어, 화학, 의료 순으로 현금흐름 측면의 저평가 매력 보유 중
→ 해당 업종 내 종목군으로 FY24 현금흐름 기준 저평가 종목을 추출했으니, 다음 페이지 참고 바람

PCFR(Price to Cash Flow Ratio) 기준의 저평가 매력 업종

업종	① FY23 PCFR (배)	② FY24 PCFR (배)	$(\text{②}/\text{①}-1)*100$
디스플레이	3.7	1.6	-56.6
조선	20.9	9.5	-54.7
유틸리티	1.9	0.9	-52.1
반도체	10.8	6.6	-38.6
하드웨어	16.0	11.6	-27.9
화학	8.3	6.1	-26.2
의료	35.8	27.2	-24.0
시장전체	6.9	5.5	-20.5
에너지	2.7	2.2	-16.2
소프트웨어	16.5	14.0	-15.3
내구소비재및의류	4.5	3.9	-12.8
생활용품	11.9	10.6	-10.7
금속및광물	5.2	4.7	-9.5
미디어	8.0	7.3	-8.4
음식료및담배	5.5	5.1	-8.0

PCFR(Price to Cash Flow Ratio) 기준의 저평가 매력 종목

종 목	① FY23 PCFR (배)	② FY24 PCFR (배)	(②/①-1)*100	외국인 순매수강도
한화오션	201.0	10.6	-94.7	0.59
천보	72.9	11.0	-84.9	0.63
효성화학	6.7	1.1	-84.0	0.27
자화전자	27.6	5.4	-80.4	0.33
현대미포조선	68.8	13.9	-79.9	0.48
심텍	27.2	6.4	-76.5	0.05
에치에프알	17.6	4.3	-75.8	0.43
SK하이닉스	15.6	5.1	-67.6	0.29
DL	5.1	1.9	-62.1	0.46
주성엔지니어링	35.4	13.9	-60.7	3.19
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	35.7	14.1	-60.6	0.94
테스	33.9	13.6	-60.0	0.48
엔켐	21.0	8.5	-59.6	0.11
원익IPS	38.6	15.8	-59.2	1.10
LG디스플레이	2.8	1.2	-58.8	0.40
대주전자재료	94.1	43.4	-53.9	1.03
고영	32.3	14.9	-53.8	0.35
하나기술	37.4	18.0	-51.8	2.52
대한유화	8.2	4.0	-51.5	0.58
서진시스템	9.0	4.5	-49.7	0.58

자료 : Dataguide,
리딩투자증권

주: 외국인순매수강도(%) =
20일간 누적순매수/ 시가총액

본 자료를 작성한 금융투자분석사는 동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-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에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
-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작성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것이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그러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라며,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- 본 자료의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, 무단복제, 변형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.